

제27차 총회 회장 연설,
“증언을 계속하라”, 치앙마이,

2025년 10월 14-23일

우리는 오늘 문화와 전통, 현대 생활이 조화를 이루며 역사의 유산과 성장의 역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는 치앙마이에서 모였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혹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며, 이를 통해 지역 교회의 사역이 강화되고 우리 사이의 협력과 증언의 정신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 청년, 원주민, 장애인들의 기여를 통해 우리의 논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 교제 자체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1875년 '*전 세계 개혁신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개혁신교회 교제(WCRC)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여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역사적 시점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수 패턴 변화와 세계 여러 지역의 물 부족을 초래한 기후 위기와 환경 스트레스, 전략적 경쟁과 정치적 포퓰리즘과 함께 진행되는 지정학적 재편과 다극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기타 신기술의 부상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는 2019년 말 시작되어

전 세계 보건 시스템, 경제, 사회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특히 가자 지구의 갈등 격화를 비롯해 수단, 파키스탄, 아이티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추구 과정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만과 미얀마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분쟁 지역의 갈등은 각각 불의를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앗아갑니다.

새로운 정치·경제 동맹의 부상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이 신흥 질서가 글로벌 공동체—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불의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 위기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수백만 명의 지속적인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와중에, 유럽 외부와 유럽 내부에서 새로운 난민 물결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불의는 무수한 삶과 가정에 스며들었습니다. 중동, 수단, 한국의 아이들 눈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그 두려움이 이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음과 고통, 불의는 계속 퍼져 나가고 있으며,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인종적 불의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많은 국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교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매일 복음을 선포하고,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의 목소리가 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지상에서 살아있는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부 – 인내, 갱신, 그리고 개혁된 정체성

우리는 오늘 교제 공동체로서 우리의 인내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모입니다. 우리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제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는 이 교제 공동체가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수행해 왔고 계속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난 독일 라이프치히 총회(2017년 6월 29일~7월 7일)에서 집중된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소서"와 이번 제27차 총회의 주제인 "증거를 인내하라"를 살펴보면, 좋은 때나 어려운 때를 막론하고 역동적인 삶으로의 일관된 부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도전 앞에서 있을지라도 갱신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개혁주의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하며,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는지 묻도록 도전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어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교제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역할과 영향력, 새롭게 된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우리 투쟁의 핵심에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내린 *교제*의 삶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부 - 건설 중인 교제 공동체

2010년 WCRC가 재편될 당시 개회 설교를 맡은 피터 보그도르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였다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이름 아래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는

건설 중인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건설을 교제, 영적 집, 에큐메니컬 조직, 증거, 수단으로 묘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복음의 중심성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터 보그도르프 목사, 2010년 연합 총회 회의록 206 쪽)

오늘날 우리 자신을 묘사한다면, 우리는 건설 중인 교제 공동체라고 말할 것입니다—새로움과 변화, 인내의 여정 위에 서서 '영적 집'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상처 입고 고군분투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실천하는 여정에 있으며, *주변부로부터의 사명으로* 풍요로워진 교제 공동체의 역할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정의를 향해 진지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상처 입은 인류로서의 우리를 치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명을 기념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축복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 회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결의로 새롭게 된 사명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그의 저서 『*변혁적 선교*』에서 상기시켜 주듯,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4부 – 인내하라: 상호 격려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우리는 오늘 "증언을 인내하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이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WCRC 제27차 총회의 주제이며, 히브리서 12:1(NRSV)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증인들의 구름이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앞선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암시합니다. 그 장은 믿음으로 살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향한 희망을 견지한 위대한 '증인들의 구름'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받은 것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히브리서 11:13*).

히브리서 11장은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자신까지 이름을 거론하며 강조한다:

29. 믿음으로 백성은 홍해를 건너 마른 땅처럼 걸어갔으나, 이집트인들이 따라가려 하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30.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은 군대가 일곱 날 동안 성을 돌고 난 후에 무너졌습니다

31.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은 모든 이들을 열거한 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증인들의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합시다*.

히브리서의 수신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지치고 낙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인내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경주를 계속하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증언 안에서 인내하도록.

인내에 대한 이해

*인내*라는 단어는 때로 오해되거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단순히 기다림과 미루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내를 뜻하는 '후포모네(hupomone)'라는 단어는 훨씬 풍부하고 능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견뎌움을 가리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유혹이나 시련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포모네*는 삶의 시련을 승리하며 맞서는 능력을 묘사합니다. 이는 삶의 타격을 견뎌내고 그것을 새로운 성취를 향한 디딤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이 용어는 두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래에'를 뜻하는 '휘포(hupo)'와 '머무르다'를 뜻하는 '메노(menō)'—즉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도감을 위해 고난을 피하기보다, 인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시련 아래에 머무르는 정신을 묘사합니다.

*후포네*의 핵심은 암울한 체념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적으로 극복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경험조차도 상승의 길 위의 발판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인내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특히 고통의 시기에 믿음의 실천이 된다. 이는 종종 소홀히 여겨지는 영적 자원을 활용하라는 초대이다. 인내는 생명을 주는 참여의 기회가 있는 곳마다 약속을 인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상호 격려와 돌봄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인내는 부활이 실현될 때까지 끈질기게 관여하는 것을 반영한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이 실현될 때까지.

제5부 – 인내의 교제 여정

지난 8년간 교제의 여정을 묘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인내의 여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여정이었다는 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부터 재정적 어려움, 총무 부재, 과로한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교제의 약속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CGS 모델의 적응부터 임시 총무 임명, 지역 내 사람들의 더 큰 참여를 장려하는 지속적인 도전까지.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의 정신은 교제 공동체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고,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의 증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계속 추구하도록 고무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헌신을 더욱 깊게 했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WCRC의 비전과 사명을 표현하는 공통 언어를 함께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근본적인 신학적 개념과 정체성 개념을 확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프로그램적 작업은 강화되었으며, 그 작업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은 우리 교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깊게 했습니다. 우리는 옹호 활동, 성평등 정의, 에큐메니컬 대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발전들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우리의 증언을 인내하며 견지함으로써 오는 축복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날들은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함께 도전에 맞서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위기를 카이로스(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증언을 인내하는 것의 축복을 분별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단으로서 우리의 프로그램적 사역이 성숙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6부 - 정의와 예언적 증언을 위한 인내

정의를 중시하는 교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쉽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때로는 비인간적인 잔혹함의 경계에 이를 정도로 더 큰 불의를 목격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접어들었으나 종식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자 지구 상황은 참혹합니다:

- 2023년 10월 7일 이후 66,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 부상자 16만 8천 명(어린이 1만 3천 명, 성인 5만 6천 명 포함);
- 50만 명 이상이 재앙적인 환경에서 생활 중입니다.
- 2025년 9월 초까지 영양실조로 361명(어린이 130명 포함)이 사망했습니다.
- 수십만 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 26개 병원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 의료 종사자 400명이 사망했으며;
- 56개 학교가 파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잔혹함은 굶주림과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그곳 주민들이 느끼는 버림받음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힘이나 조직 없이 내버려진 채,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조직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보다는 말과 용어에 집착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식민지화되고, 납치되고, 억압받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동안—세상은 지켜보기만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최근 몇 달간 전 세계 대학에서 터져 나온 학생 운동은 상실된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규이며

—도덕적 양심을 마비시킨 세계적 침묵에 대한 저항이다. 이 운동은 우리에게 묻게 한다:

우리는 어떤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슬로건의 족쇄를 깨고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인종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낸 그 학생들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인내로 증언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영적 집으로서 성숙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가자 지구 주민들이 직면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지속적인 평화—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교회가 그 과정에 수동적인 결과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7부 - 아크라 신앙고백: 인내와 정의

증언의 인내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교제 공동체로서 아크라 신앙고백이 우리의 정의 사역과 정체성의 기초적 기둥으로 남아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크라 신앙고백에 표현된 가치들을 깊이 성찰하고, 그것이 현재의 맥락에 여전히 지니는 지속적인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024년, 우리는 아크라 신앙고백(2004)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며, 이 고백이 최초 선포 당시 예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세계적 경제적·생태적 불의 속에서 여전히 강력히 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고백은 불평등과 생태 위기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맞서는 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교단은 고통으로부터 창조물의 해방을 꿈꾸는 비전을 되새기며, 세계적 경제·생태적 정의를 위한 회고와 회개, 재헌신의 과정을 재점화했습니다. 창조물은 여전히 신음하며, 인간과 지구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에 의한 깊은 상처를 여전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만연하고 정치·경제 체제가 고통을 지속시키는 추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희생시키며 이윤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상충합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과 창조계 자체로부터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구원의 허위적 약속을 내세웁니다.

20여 년 전 아크라 신앙고백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삶을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영역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차원들을 통합된 소명의 일부로 이해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서는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모든 이를 위한 충만한 삶"이라는 중심 주제 아래 이러한 현실들을 대화로 이끌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화는 쉬운 답을 거부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한 어렵고 변혁적인 작업을 받아들이는, 더 강한 신앙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의 거대함과 복잡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로서—무력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우리는 고백서와 함께 현재의 세계적 혼란이 비도덕적이고 착취적인 경제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아크라 고백서, §11*).

아크라 신앙고백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도전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6:1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일 예배와 일치시키도록, 즉 우리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며,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평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레바논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담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죽음이 계속되고, 인질들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으며,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동맹과 의제가 우리 세상을 형성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혹은 우리 교단—이 우리를 둘러싼 불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년간 정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단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종이 위의 글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억압 아래 사는 많은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공기 중에 감돌며, 그들은 묻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럼에도 아크라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목소리를 계속 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제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의심받게 하고 그 진정성 자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고백을 정직과 용기로 실천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아크라 신앙고백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말의 모음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피조물의 고통을 덜어주며 아픈 곳을 가리키는 행동의 촉구입니다. 이처럼 신앙고백은 우리의 교제 의식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깊게 합니다—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함께 모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신실함, 상호 연대, 책임 있는 관계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언약에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를 지역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경제와 지구 모두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묶습니다(*아크라 신앙고백*, §37).

아크라 신앙고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 위기의 시대에 정의와 예언적 행동에 헌신하는 교회를 꿈꾸라—이는 우리 개혁주의 정체성의 기초이다.
- 경제적 세계화의 파괴적 힘과 여성 및 억압받는 사람들의 체계적 소외에 맞서는 예언적 선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포용적 정의 체계와 자비롭고 기쁨 가득한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경제'를 포용하며, 모든 이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희망, 연민, 상호 지원에 뿌리내린 경제를 구축하는 것.

"아크라 플러스 20" 과정은 집단적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 불평등에 맞서 개혁주의 공동체의 예언적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경제적·생태적 결정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자비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 희망을 구현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우리는 아크라 신앙고백의 정신에 충실하며 진실과 용기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8부 – 인내와 지속가능성의 도전

교단으로서 인내의 여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의 에너지와 인내를 많이 요구해 온 핵심 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금 확보입니다. 이 예산은 행정 구조를 유지하고 교단의 프로그램과 사명을 수행하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10년 총회 당시에도 제기된 오랜 문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간 10유로" 모금 캠페인의 시작 덕분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집행위원회 구성원부터 일반 신자에 이르기까지 교단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핵심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인내 여정에서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원 교회들의 기여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지역 간 기여금 분배가 보다 공평해지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동 책임의 건강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 급여와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예산에 기여하는 데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단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원 교회의 재정적 헌신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프로그램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이미 제한적이어서, 우리는 교회들 사이에 재정적 책임감과 언약적 헌신의 정신을 다시 불어넣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교단에 속하고 교단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단에 가입할 때 맺은 약속으로,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를 함께 하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WCRC 회원들은 교회들이 재정적 기여를 통해 소속감을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 미래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사명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우리는 결실 있고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인적 역량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커뮤니언이 인내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으로 더 큰 짐을 짊어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세 명의 신규 직원의 급여를 지원해 주시고 프로그램 업무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파트너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도전 속에서 우리는 교단으로서 성숙해져 연대와 믿음으로 역경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증인들—그들의 헌신은 금전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함께함의 정신과 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교단은 오늘날 더욱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협력으로 공동 사역을 풍요롭게 하는 파트너들과의 강력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인정합니다. 함께 걸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얻는 풍요로움과 우리가 공유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9- 지역 강화

교단으로서 우리는 우리 사역의 힘이 지역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구조, 리더십이 부족한 지역들—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진 도전 과제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협의회는 약화되었으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간 협력을 재구상하고 활성화하여 교제의 모든 부분이 전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교제를 위해서는 총회 사무국과 지역 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 지역 교회의 사역과

각 지역 교회는 고유한 은사와 통찰력을 기여합니다.

지역의 사역을 장려하는 것은 온 교회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교단의 힘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는 글로벌 사무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역과 함께 지역이 공유하는 권한 부여에 있습니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교단 전체의 안녕을 위해 조화, 상호 책임성, 인적·재정적 자원에 대한 공동 책임을 심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 리듬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회가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 헌신은 사역, 정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은사와 축복을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10-에큐메니칼 삶과 정체성

교단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을 실천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의 에큐메니컬 삶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하며, 개혁주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제 교회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공의회는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는 우리가 에큐메니컬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1. 에큐메니컬 세계에 대한 증인의 구름:

개혁주의는 에큐메니칼함이다. 교단으로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사역과 선교, 그리고 그 예언적 목소리에 대한 증인의 구름이다.

예언적 목소리에 대한 증인의 구름입니다. 우리 교제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더 넓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들이 교제 공동체에 필요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종종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컬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존재와 참여를 통해 우리의 공동 생활을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교제 공동체 내 지도부의 참여 수준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2. 예언적 목소리를 위한 증인들의 구름:

교단은 자유롭고 솔직한 표현이 장려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또는 미디어 주도적 의제와 무관하게 선명하고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친이슬람", "반유대주의", "친하마스"와 같은 구호로 부추겨진 분열과 양극화의 분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표들은 교회를 마비시키고 그 증언을 침묵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호들의 사슬을 끊고 예언적으로 말할 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말해야 합니다.

3. 책임성을 위한 증언의 구름: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책임과 평가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분별될 때 위협이 아닌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공유된 평가와 정직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교제를 강화하고 공동의 증언을 깊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함께함의 가치와 건설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과 구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생태적 정의를 위한 증언의 구름:

우리는 아크라 신앙고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오늘날 세계에 대한 그 예언적 관련성을 재확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경제적·생태적 불의가 서로 얽혀 있으며, 희망에 뿌리내린 신실한 저항으로 맞서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5. 성평등을 위한 증인의 구름:

우리는 여성의 리더십과 의사 결정 역할이 우리 교단의 생명력과 신뢰성에 필수적임을 확언합니다. 성평등은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6. -예배에 뿌리내린 정의를 위한 증인의 구름

우리 교단은 신앙과 행동을 연결하는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주제는 변혁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을 반영하며, 우리의 헌신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사람들의 일상적 투쟁—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화려하나 정의에는 무력한 시적인 교단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정의가 본질적으로 얽혀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경외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주요 관심사

1-지속 가능성은 건강한 핵심 예산과 재정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WCRC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헌신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 중심에 있습니다.

2- 모든 지역과 연결하기 위한 계획, 방문 및 프로그램 전략 수립

우리의 사명과 전략적 목표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단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지역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단 전체에 걸쳐 연결성과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지역 방문을 강화하고 교제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통 강화

소통은 강력한 교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부 유대감과 공개적인 증언을 모두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 계획이 커뮤니케이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데스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전략 계획을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
- 우리의 정체성, 비전, 사명을 알리는 사용자 친화적 문서

미디어 존재감과 교회 간 소통을 강화하면 역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회원 교회들이 서로 배우고 사역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역량 문제

전략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 핵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인력으로 비전을 실현할 역량이 충분한가?*

현재 우리는 4명의 임원진, 4명의 행정 직원, 그리고 2명의 인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 계획이 요구하는 수준의 탁월함과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 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열정적인 직원들에게 감사드리지만, 다양한 방법, 파트너십,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팀을 확장하는 데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을 보다 정기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 주요 재정 후원자,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그들의 통찰과 기대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 거버넌스와 관리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 전략적 목표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감독하기 위해 SPPG 위원회(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를 활성화하는 것.

12-우리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삶에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온 몇 가지 발전 사항:

1- 로마에 에큐메니컬 사무소 개설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로마에 에큐메니컬 개혁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2- 글로벌 사무소 프로그램에 여성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공정한 참여를 향한 진전을 반영함

3- 커뮤니온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생동감 넘치고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과 프로그램 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는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신뢰성을 반영합니다.

5- 글로벌 사무소에 두 개의 새로운 직책 신설: 선교 및 옹호 담당 사무총장, 성평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또한, 에큐메니컬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로마에 세 번째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파트너들의 지원 덕분에 가능해졌으며, 우리의 정의 실현 작업을 심화하고 우리의 증언을 확대할 것입니다.

6. 전략 계획의 실행과 모니터링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전략 계획을 종이 위의 글자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략 계획의 성공은 활동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 공동체와 우리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SPPG는 성찰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핵심 촉매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전략계획평가그룹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참조 그룹에 의해 조정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
- 프로그램이 헌장과 전략 계획에 명시된 비전과 가치에 따라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참조 그룹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이를 사무총장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프로그램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후속 조치를 위해 참조 그룹에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위원회, 임원진, 회원 모두를 아우르는 모든 수준에서 더 큰 책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13부 - 감사, 성찰 및 마지막 말씀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의 사역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신실한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에 대한 증언과 연합의 삶을 깊이하는 데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너무 많아서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오늘 여기 함께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함께 도전을 겪고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증인들의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확신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 교제 공동체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뒤에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조직하고, 소통하며, 우리의 다양한 가족을 하나로 묶는 유대를 가꾸어 왔습니다—우리 교단의 모든 구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본 교단에서 일하며 이 세계적인 가족 안에서 섬김의 축복과 도전 모두를 경험하기 위해 1~2년의 삶을 아낌없이 바친 인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교단과 함께 걸어가며 교단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미래 지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고한 헌신을 보여준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단이 기능하도록 유지하며, 함께 협력하고 도전에 직면하여 책임을 지고, 중요한 시기에 교단이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신실한 임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공회 공동체의 유능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별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운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재정적 지원과 확고한 동행을 보여주신 파트너 기관, 단체, 교회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교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의, 갱신, 평화의 지속적인 사역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신실한 헌금을 통해 교회들의 선교, 신학적 성찰, 평화와 경제적 정의를 위한 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개혁교회 간의 교제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부르심—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이 되라는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은 단순한 자원 기부가 아닙니다.

자원의 선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와 섬김, 희망으로 하나된 세계적 가족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기를 마친 크리스 퍼거슨 목사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교단을 이끌며 교단의 역할과 정의 사역을 신실하게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시는 분은 임시 총무로 섬기신 세트리 니오미 목사님입니다. 14년간 교단에 헌신하신 후 다시 한번 이 책임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겸손하고 꾸준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힘과 희망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의 신실함과 헌신 덕분입니다. 가나와 전 세계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그에게 기쁨과 평화,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로 선출된 필립 피콕 총무 목사님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교단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교회와 가족에게 드리는 감사

지난 8년간 변함없는 지지와 이해를 보내주신 제 교회인 시리아-레바논 전국복음주의 총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제가 세계교회연합회 총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의와 교회연합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저에게 깊은 영감과 지지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남편 조셉 카사브 목사님, 딸 미라와 탈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아들 자드—의 인내와 이해,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특별한 할머니'로 여기는 손녀마저 이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 없이는 이 소명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WCRC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4-마지막 소감

지난 8년은 인내와 우리 교단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확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성장과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리더십의 시간이었으며, 흔히 말하듯 *위기는 인격을 드러내고 리더십을 형성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요약해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리더는 혼란을 흡수하고 평정을 발산하며 희망을 고취한다."

— *저자 미상*

이는 혼란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의 정신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지탱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어려운 날들을 견뎌냈으며, 이것이 카이로스(kairos)의 순간—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때—임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금속기(金継ぎ)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속기는 깨진 도자기를 금, 은, 백금으로 만든 옷칠로 수리하는 일본의 고대 예술입니다. 금속기의 철학은 심오합니다: *깨짐과 수리는 물건 역사의 일부이며,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금은 가려지지 않고 빛나며, 깨진 것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모시킵니다.

우리 교우회 역시 어려운 날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모여 개혁되고 새롭게 되며 더욱 강해질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속기 도자기처럼 우리도 재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짐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고통을 목적(目的)으로, 상처를 증거(見證)로 바꾸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금속기처럼 십자가는 고통과 깨짐이 우리 역사의 일부임을 상기시키지만, 그것들이

마지막 말을 가지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부활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빛어진 그릇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선사합니다.

부서짐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지역과 세계적으로 교제의 삶과 증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뢰와 투명성, 공동의 목적 안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워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환대의 '교제' 상에 동역자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 총회가 함께 증언하고 인내하는 기쁨을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교제 안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참고: 본 문서의 다른 언어 번역은 DeepL의 도움을 받아 가능했습니다.